칼을 수직으로 만나면 죽는다

(사무엘하 3:1~30)

6.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7.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8.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0.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칼을 수직으로 만나면 죽는다>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칼을 수직으로 만나면 죽는다’
김훈 작가의 기념비적인 소설인 “칼의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의 부제는 “충무공 그 한없는 단순성과 순결한 칼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에 의해 옥에 갇혔으나 삼도수군통제사의 자리에 있었던 원균이 패배하자 1597년 정유년 4월 초하룻날에 풀려나 백의종군하게 되고 2년이 채 못 되는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는데 이 기간 동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명량 해전, 노량 해전 등에서의 영웅적인 업적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성웅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으로서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내면의 상황을 그리는데 주목합니다.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도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보는 인간 이순신의 내면 상황은 다양한 쇠사슬에 묶여있었던 그 사슬을 끊어내고 어떻게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이러한 영웅적 행동은 내면의 단순함

과 순결함과 정돈됨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칼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사슬들이 있었는데 첫째, 전쟁의 실상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너무나 추상적이고 장렬한 수사로 가득 찬 교서만 내려 보내는 임금 / 둘째,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호시탐탐 그의 목을 노리는 조정의 대신들 / 셋째, 대군을 이끌고 왔음에도 자기들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무작정 세월만 보내고 있는 명나라의 장수 / 넷째, 그러한 강대국에 비위를 맞춰주어야 하는 약소국가의 입장에서 나오는 한(恨) / 다섯째, 군령을 어기는 부하들과 울며 매달리는 백성들 또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돌봐야 하는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서 풍전등화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적과 싸워야만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순신 장군이 이 모든 옥죄는 쇠사슬들을 어떻게 다 끊어내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칼의 논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왕이 계속 간신들의 말을 듣고 오해하고 조정의 대신들은 거짓으로 모함하고 명나라 장군,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는 한 한산도 대첩이나 명량 해전이나 노량 해전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칼의 논리에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칼의 명(名)이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고 하는데 ‘한번 칼로 휩쓰니 피로써 산과 강을 물들인다.’라는 뜻이고 이 논리를 삶에 적용했다는 것인데 다 칼로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도입니다. 칼의 본질은 수직으로 만나는 것들을 베는 것인데 비켜써는 것은 수직각도로 베는 칼의 본질의 변용이고 응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옥죄는 모든 관계를 끊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칼은 구체적으로 무인(武人)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하늘에서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순신 장군을 옥죄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수직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끊어냅니다. 작가는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칼의 논리에 의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기 위해서 임금과의 관계를 붙잡았다면 나라가 망하고 말았을 것인데, 뉘앙스를 달리하고 색깔을 달리하면서 이러한 칼의 논리가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순신 장군과 같이 다양한 삶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가족 나라 직장 친구 건강 돈 사업 등이 수평으로 나와 관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으로 내려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수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뜻이 내려오는 지점에 있는 수평적 움직임이 있는 한 다 끊어지게 됩니다. ‘수평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내 마음과 사업이 수평면 상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사업은 끊어지고 맙니다. 선민의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끊어지기 때문이고, 선민의 자녀교육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자녀에 대한 나의 뜻과 소원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어집니다. 선민이 하나님의 뜻을 수직으로 받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일들이 자꾸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옥죄였던 것들을 칼의 논리로 베어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수평면 상에서 마음과 연결된 것들을 십자가 칼로 스스로 끊어내야만 합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칼로 끊지 못하고 끊어짐을 당한다면 여기에 지독한 아픔 고통 괴로움 불안 불평 원망 한이 있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상을 끊고 무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끊으면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평행의 입장에서 같이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땅에 매여 있는 한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내게서 성취될 수 없으며, 내가 뜻하고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끊어지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됨이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것에 대해 나머지 이스라엘은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 배후에는 사울의 사촌이었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에 대한 얘기가 본문의 주 관심사인데 아브넬의 세력이 이스라엘 안에서 실질적인 실권자가 됩니다. 그 실권자였던 아브넬의 자아의식의 표현이 사울왕의 첩을 자기 여자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하였던 자가 왕의 첩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 왕이 그 일을 지적하자 아브넬은 분개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이고 왕의 여자를 차지하는 자는 정복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허수아비입니다. 왕 되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실권을 행사하는 한 방편이었는데 그것을 지적받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향하여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적대국인 유다 땅에 돌아다니는 개의 대가리냐 그렇게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이 나라가 현재 이렇게 존립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인데 사울 왕의 여자를 취했기로서니 그것을 탓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면서도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며 자기의 욕심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명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온 아브넬에게 잔치를 열어주었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전장에 나갔던 요압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넬을

불러내서 다윗 모르게 죽이는데,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칼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무엘 입을 통해 알려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보셋에게 지적을 당하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돌아오기로 결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소에 돌아오기로 한 아브넬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스보셋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묶인 것처럼 땅에 마음이 묶인 채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수평면상의 끈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다윗에게 왔다가 하나님의 뜻이 수직으로 임하는 칼이 되어서 아브넬을 치자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오는 아브넬의 모든 행동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에서 비롯된 정치적 역학관계의 소산이었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요압에 의해 아브넬이 죽은 이유는, 이 세상과의 수평적 관계의 끈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오면 하나님의 수직적으로 임하는 칼에 의해서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치 목공소에서 전기톱에 수직으로 나무를 대면 잘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수평으로 칼을 휘두르면 나무가 수직으로 서 있어도 칼을 맞아서 잘라지는 것이고 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도 잘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뒤엉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목공소에서 돌아가는 칼날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18: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혹하지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무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수평면 상에서 마음을 옥죄었던 모든 줄을 끊고 전장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죽어야 될 장소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옥죄는 모든 수평적 관계를 십자가의 칼로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내가 잘라내었던 모든 방면들에 대한 하나님이 뜻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려올 때에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회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수평면적으로 세상과 연관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이것들이 다 잘라져야만 끝이 날 것입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그의 마음을 오롯이 당신만 차지하시기로 결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신의 독점물이 되어야 될 선민의 마음이 이 세상의 다른 존재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무조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가고 일이 형통하다면 버림받은 것입니다. 칼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려 보내실 생각이 없으신 것이기 때문에 칼이 없는 것이고 수평면상에서 붙잡고 살아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무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삶의 방면들을 십자가 칼로 끊고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민의 사명'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린다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은 칼이 되지 않고, 흘러 흘러가는 강물에 뱃놀이를 하듯이 내가 타고 흘러갈 수 있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칼로 매일 매일 세상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였고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칼에 수직으로 들이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칼의 논리가 우리에게 양날의 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끊어내면 살 것이고, 피동적으로 잘리면 멸망이고 죽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